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13℃ 목포 3/11℃ 여수 5/12℃

단기 4342년 (음력 10월 1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38호 1판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호남신학대학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빛고을을 밝힐 크리스마스 트리가 1일 오후 7시 점등식을 갖고 불을 밝혔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학 기숙사동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타워(빛과 섬김의 탑)은 8층 건물 옥상에 20m 높이(해발 119m)로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앞으로 매년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불을 밝히며 시민에게 개방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F1 한숨 돌렸다

경주장 건설비 880억 국회 문방위서 살려내

광주 亞문화전당 예산도 200억 증액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 경기장 건설 예산과 CT 연구원(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 예산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들이 신규로 확보되면서 국회의 지역 예산 챙기기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그러나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관련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어 국회의 예산 심의가 파행을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국회 예결위에서 막판 변동 및 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아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F1 경기장 건립 예산 880억원과 F1 진입도로 예산 6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이를 국회 예결위로 넘겼다.

F1 경기장 건립 예산은 지원법이 늦게 제정되면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높았으나 국회 문광위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국회 예결위 통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광주의 현안 사업인 CT 연구원 설립도 청신호가 켜졌다. 문방위에서 CT 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아직까지 CT 연구원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예결위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산도 200억원이 증액된 400억원의 예산으로 예결위로 넘겨졌다. 예산 증액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국회 예결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구 전남도청 별관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의 정상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문방위에서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예산도 20억원을 증액, 총 30억원을 반영시켰다.

국회 지식경제위에서도 광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전로봇육성사업(75억원), 광주 R&D 특구 조성사업(70억원) 등이 별다른 문제없이 예결위로 넘겨졌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산업용 레이저 핵심부품 및 모듈 국산화지원 사업(60억원), 나노융합 상용화 사업(17억원)과 OLED 조명사업(20억원 증액), 광융합 그린 IT 사업(15억원 증액)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순조롭게 반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로 예결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의 내년 SOC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정부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MB 호남 구애? 이번주 또 방문

10여일만에…세종시·4대강 민심잡기 나선 듯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 민심 몰이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 6공구 승촌보 사업현장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 행사에 참석한 지 10여 일만에 또다시 호남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중에 영·호남을 찾아 자연스럽게 (세종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불과 보름도 안 된 기간에 두 번이나 호남을 찾는 데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민심을 잡기 위한 공격적 행보로 파악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논란에 따른 혁신·기업도시 건설 차질 우려 여론이 지방에 확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전국이 찬반으로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우호적 여론 형성 돌파구를 호남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번주 중 호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등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여론 수렴과 설득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에 대한 사과와 설득을 시작한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논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관련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국민에게 충실히 알리고 더 설득해 달라"고 말해 이번 호남 방문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DJ 일대기 영화로 만든다

'인동초' 영화제작 사업단

지난 8월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인동초' 영화제작 사업단은 1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J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제작 계획을 밝혔다.

영화제작 사업단은 "영화는 4년 전부터 기획됐지만 살아있는 정치인을 영화화한다는 데 부담이 있었다"며 "정치인 김대중보다는 인간 김대중에 대한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은 민주당 중앙당 기획조정위원장을 지낸 김필용 씨가 대표로 있는 제작사 위서플라이가 맡았다.

김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은 한 편의 대서사시였다"며 "김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인류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는 현재 시나리오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이며 감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단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주연 배우를 선정하고 사전 예매제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벌써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림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단편소설·시·동화…12월15일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접수마감 : 2009년 12월15일(15일자 소인 유효)

■보내실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062-220-0680)

■기타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 (당선작 1편, 고료 300만원)

●시 : 3~5편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원고 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주소·e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인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당선작은 2010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